

독보적 수익성...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시총 1위 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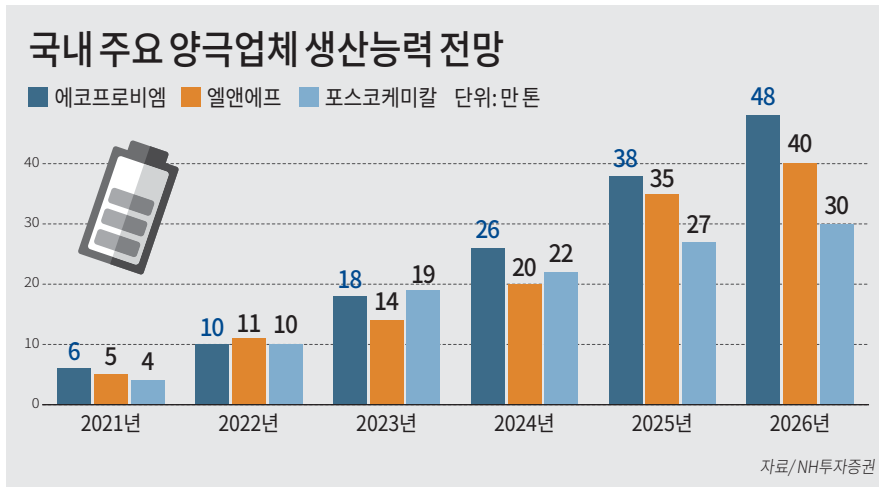
전체 매출액의 99.6% '양극재' 올해 초 대비 200% 이상 급증 3분기 매출액 4081억 '최대치'

2차전지 소재 기업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시총액 1위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전기차(EV)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세에 주가가 급등하면서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2016년 에코프로에서 전지재료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됐다. 201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주력 생산한다.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및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 개발과 양산 등 국산화에 성공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에코프로비엠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양극재 매출액 비중이 99.6%를 차지한다.

◆에코프로비엠, 올해 200% 올랐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보다 1만8400원(3.30%) 감소한 53만9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가 6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국내 증시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



며 단기차익 매물이 출회됐기 때문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9일 55만7500원에 장을 마감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200% 이상 급등한 것.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급등은 코스닥 시총 순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초 6위에서 2위로 네계단 상승했다. 이날 기준 에코프로비엠의 시총은 11조 8168억원으로 올해 초(3조9380억원) 대비 2배 이상 규모가 커졌다.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인 셀트리온헬스케어

(13조1921억원)와 1조3753억원 차이다. 지난 9일에는 6465억원으로 격차가 좁혀지기도 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10월부터 지난 9일까지 외국인은 990억원, 기관은 48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개인은 1480억원을 팔아치우며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외 양극재 업체 중 독보적 수익성'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3분기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증권가는 중장기 성장성도 유효하다며 빠르게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NH투자증권은 기존 48만원에서 80만원, 미래에셋증권은 53만원에서 78만원, 하나금융투자는 5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올 3분기 에코프로비엠은 매출액 4081억원, 영업이익 407억원, 지배주주순이익 32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 130%, 139% 급증하며 분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률은 10%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국내·외 양극재 업체 중 비교 불가의 독보적인 수익성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4분기에도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풀이된다.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주요 고객사와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가 절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SDI와는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2022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주민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양극재 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성되고

양극업체의 마진은 가공비에서 나온다.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이 필수"라며 "양극재의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원재료 내재화와 리사이클이며, 이 두가지 모두를 계열사를 통해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업체는 에코프로 그룹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한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와 관련한 시장의 우려는 과도하다는 평가다. 테슬라와 폭스바겐 등이 LFP 배터리 도입을 선언했다. CATL, BYD 등 중국 업체들이 주로 LFP 배터리를 생산하며,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NCM·NCA 배터리를 주로 생산한다.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은 NCA·NCM 제품 라인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LFP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NCM·NCA 배터리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주력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술력을 가진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크다"고 전망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SK에코플랜트, 중대 무사고 500일 '쾌거'

온라인 화상시스템 활용 200명 참석 사고 위험성 데이터화... 안전관리

SK에코플랜트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지플랜트(G.plant) 사옥에서 '중대 무사고 500일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활용해 국내외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소장 및 구성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SK에코플랜트는 안전관리의해답을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에서 찾았다. 최근 10년간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분석하고 사고 위험성을 데이터화하며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는 게 SK에코플랜트의 설명이다.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당일 작업의



SK에코플랜트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지플랜트(G.plant) 사옥에서 '중대 무사고 500일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SK에코플랜트

위험성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안전책임자와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해주는 휴대폰 앱 '안심(안전에 진심)'을 개발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소형 건설사들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 앱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건설사에 시범적용한 결과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높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의 강도와 빈도 데이터

를 분석해 건설현장에서 발생가능한 고 위험작업을 정의하고,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6대 중점관리 항목을 마련해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6대 중점관리 항목에는 추락, 끼임, 질식사 등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20가지로 세분화됐다.

본사에도 통합 안전관리 관제센터를 신설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데이터를 실시간 종합 모니터링하며 안전사고 위험성을 즉시 확인 및 조치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HDC현대산업개발,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구현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장 내 모든 근로자와 관리 감독자가 위험신고센터에 접속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현장 내 모든 근로자, 관리 감독자는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위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 작업환경을 조성,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실 관계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즉시 고쳐나갈 것"이라며 "HDC만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안전 운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인플레이션 우려에 국고채 금리 급등

금투협,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지난달 국내 채권금리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와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예상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급등했다.

금투자협회는 10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21년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금투협은 "월 초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채권값 하락),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 기관투자자의 손절성 매도 등으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며 "중순 이후

기재부의 국고채 바이백과 한은의 통안증권 발행 축소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인플레이션 상승과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 등으로 매수심리가 침체되면서 금리는 추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10월 채권 발행규모는 금융채와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전월(57조원) 대비 8조4000억원 증가한 65조4000억원, 발행잔액은 국채와 금융채 등의 순발행이 16.3조원 증가하면서 244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는 금리 상승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이 부진하면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해 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AA- 회사채 크레딧 스프레드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박미경 기자

외국인 증시 순유출 전환 주식·채권자금 유출폭 확대

지난달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크게 줄며 소폭 순유출로 전환됐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예상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2021년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4억5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주식자금과 채권자금 모두 유출폭이 크게 확대됐다.

주식자금은 기업 이익 증가세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 연준 테이퍼링 예상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순유출로 돌아섰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KB메타버스펀드' 순자산 1000억 돌파

KB자산운용, 출시 5개월만에 성과

KB자산운용의 'KB글로벌메타버스 경제펀드'가 출시 5개월만에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했다.

최근 공모펀드 흑한기에도 메타버سته마가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됐다. 무엇보다 자금 유입의 가장 큰 요인은 뛰어난 운용성과다. 이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8.01%로 메타버스 관련 펀드 중 가장 높다. 10일 제로인에 따르면 글로벌 주식형펀드 평균 수익률 대비 4.3%포인트 상회하는 수치다.

차동호 KB자산운용 ETF운용실장은 "2020년 7월에 출시된 'KB미국데이터센터인프라 리츠' 펀드를 준비하던

초기부터 꾸준히 병행 리서치를 진행하며 준비했다"며 "인프라·하드웨어·소프트웨어·플랫폼 4가지 영역을 주요 관련 분야로 압축해서 투자한다"고 말했다.

가장 편입비중이 높은 기업은 엔비디아로 펀드 내 비중은 5.82%다. 그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 5.17%, 로블록스 5.11%, 애플 5.10%, 쉘컴 5.07% 등 40개 기업에 분산투자하고 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몰입없이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누적수익률 13.95%로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셈이다.

또 KB자산운용은 10월 13일 국내 메타버스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KBSTAR iSelect 메타버스 ETF'를 상장해 현재 수익률 19.32%를 기록 중이다.

/박미경 기자